

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비교*

정석희**, 신자현***

요약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모색을 위하여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 research design)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4학년 간호대학생 137명이다. 양적 자료 분석은 IBM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영화가 역할극에 비해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딜레마 사례로써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교육자로서 이 방법을 이용할 의도, 타인에게 이용을 추천할 의도 및 전체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질적 자료 분석에서는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영화 및 역할극의 장·단점,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간호윤리, 간호교육, 영화, 역할극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 의료인을 배출해야 하는 의학 및 간호학 교육에서는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료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의학 및 간호학 교육인증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제2주기 간호교육인증 평가에서는 학습성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성과를 달성토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과목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다[1].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간호교육에서는 창의적 교수법[2], 영화[3], 역할극[4], 문제중심학습[5], 사례기반학습[6,7], 액션러닝[8], 블렌디드러닝[9]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교수학습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 및 간호학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교과목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 윤리 및 간호윤리 교과목이다. 윤리는 인류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체계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 틀이기에[10], 미래의 의료인이 될 학생들에게 의료윤리 및 간호윤리 교육은 꼭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간호윤리 교육은 상호관계적이고 맥락중심적인 간호의 본질과 관련지어 이해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1]. 이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개인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켜 간호행위 매 순간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교육방법론의 변화가

이루어져왔다[12].

최근에도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서 환자 인권의 중요성 증가 및 생명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13],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환자의 실존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14]. 실제로 간호사들은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많이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혼란이나 윤리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윤리 교과목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접하고 훈련하며, 딜레마 사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실제 간호현장에서 효과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1]에서 제시하는 12개의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이 학습성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간호윤리학 교육을 통해 단순한 지식습득을 넘어 습득한 지식을 간호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윤리 교육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방법에는 임상 회의(clinical conference)나 사례연구 발표(case study presentation), 윤리학 실습(ethics rounds) 등이 있으며[10], 역할극이나 문학, 연극, 영화, 시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16]. 최근

에는 교차조사식 아카데미 토론[17], 간호윤리 상황극[18], 블랜디드러닝[9], 토론식 수업[19], 영화[20] 등 더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이들 교수학습방법들 중, 특히 간호윤리 사례 및 딜레마 상황의 재현을 통하여 실제 간호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영화와 역할극이 이용될 수 있다.

영화를 활용한 교육은 생각하게 하는 교육,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1]. 최근에는 의학 및 간호학 교육에서 영화를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 ‘영화간호교육(cinenurducation)’이란 개념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2-26].

역할극이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부여된 역할을 맡아 유용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에 알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학습 활동으로[27], 간호대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된 연습으로 환자와 동료들 간에 가져야 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환자 역할을 하는 수업방법을 통해 학생 중심의 비용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28]. 간호교육 분야에서는 역할극을 활용한 후 수행한 실습교육[4,29,30] 및 의사소통능력[28]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이들 영화와 역할극은 각각 개별적인 연구에서 각각의 효과만을 검증하였을 뿐 동일 대상자들에게 역할극과 영화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효과 및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

학생들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 모색을 위하여 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와 역할극을 함께 적용한 후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윤리 교육에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비교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의 영화 및 역할극에 대한 장점, 단점,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의 주관적 평가내용을 확인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이 간호윤리 학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영화 및 역할극을 적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한 후, 교수학습방법으로 이들 방법들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양적 자료의 서술적 조사연구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의 질적내용분석이 함께 결합되어 진

행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 research design)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1) 질적연구방법 적용을 위한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 대한 다수의 세미나와 학회에 참석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과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박사과정 중 질적연구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관련 참고문헌들을 숙독하고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에 의하여 함께 수행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질적내용분석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결과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에 같은 분석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J도 내 일개 간호대학의 재학생들 중,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간호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각 해당 년도 4학년 학생 총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각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월에 4학년 1학기 종료 시 총 3회에 걸쳐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31]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에서 검정력($1-\beta$)=0.80, 유의수준 $\alpha=0.05$, 중간

효과크기=0.5로 하여 산출한 결과, 총 표본수 128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의 표본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연구 도구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딜레마 사례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묻는 설문도구는 크게 양적 자료 조사지와 질적 자료 조사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양적 자료 조사지는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딜레마 사례로 영화 및 역할극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묻는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영화의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에 대한 6문항 및 역할극에 대한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딜레마 사례로 영화 및 역할극에 대한 이용 가능성 및 효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 12문항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88로 나타났으며,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영화관련 6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86, 역할극관련 6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9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질적 자료 조사는 영화 및 역할극 각각의 장점과 단점, 소감 및 개선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조사를 위해 특성조사지는 연령, 성별, 윤리학관련 교양과목 수강 여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진행 절차

1) 교과목 운영을 위한 연구자의 준비

본 교과목은 연구자들 중 한국리더십센터 및 소속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교수학습법 관련 과정을 수료한 간호학교수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본 연구자는 교수학습법과 관련하여 여러 대학교 및 학회 등에서 특강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간호윤리 및 교수학습법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구성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은 간호학과 4학년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으로 1학점으로 운영되었다. 본 교과목 개요는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에서 간호사 및 다른 건강관련 전문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이슈를 사정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간호윤리의 이론 및 실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등 간호윤리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토론한다’이다.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주요한 윤리이론, 윤리원칙 및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간호사의 실무에 영향을 주는 도덕, 법, 윤리적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윤리적·법적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제시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여섯째,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한 학기의 총 15주 강의는 크게 2개 파트로 나

누어 운영되었는데, 중간고사 전까지의 전반부에서는 간호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 및 관련 이론에 대한 소개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간고사 이후부터의 후반부에서는 ‘간호윤리의 실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관련 개념을 학습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제공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개별 또는 팀별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그 후 수행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체 수강생들이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하였다.

교수학습법으로써 영화 및 역할극 이용은 강의 후반부의 간호윤리의 실제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즉, ‘생명의 시작’,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생의 말기’, ‘보건의료자원 분배’, ‘부당·무능·불법행위’의 주제에 대하여 각 주제별로 역할극을 이용한 딜레마 사례와 영화를 이용한 딜레마 사례를 제공하였다. 제공된 딜레마 사례는 해당주제의 발표를 맡은 팀원들이 담당 지도교수와의 사전 논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역할극의 경우에는 해당 팀원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하였는데, 시나리오에는 뉴스, 신문 보도 및 임상실습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영화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되어 방영된 영화 및 드라마들 중 주제에 적합한 영화를 선정하여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간호윤리의 실제 부분에서 각 주제별로 윤리적 딜레마 사례로 이용된 주요 영화 및 드라마들은 다음과 같다.

· 생명의 시작: If these walls could talk (Nancy Savoca & Cher, 1996), My sister's keeper (Nick Cassavetes, 2009), Private practice Season 2: a family thing (Mark Tinker, 2008)

-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Last appointment (Michael Winner, 1988), 극락도 살인사건(김한민, 2007)
- 생의 말기: Wit (Mike Nichols, 2001), You don't know Jack (Barry Levinson, 2012), Just like heaven (Mark Waters, 2005)
- 보건의료자원 분배: 종합병원 2 (노도철, 2008), 골든타임(권석장, 이윤정, 2012), 심장이 뛰다(윤재근, 2010)
- 부당·무능·불법행위: 괴물(봉준호, 2006), 종합병원 2 (노도철, 2008)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의에 따라 연구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후 설문자료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얻어진 개인의 정보는 기밀로 간주하고 식별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보장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19.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영화 및 역할극의 문항별 점수 및 평균차

이는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 그리고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내용인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4학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1세에서 27세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23.40±1.07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126명(92.0%), 남자가 11명(8.0%)이었으며, 교양과목으로 윤리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대상자는 114명(83.2%),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23명(16.8%)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비교

간호윤리 교육에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및 이들 문항들의 전체평균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영화 및 역할극의 각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전체 6개 문항들 중 영화(4.39±0.57점)

<Table 1> 일반적 특성(n=137)

특성	구분	n (%)	Mean±SD (범위)
연령(세)	20~24	119 (89.5)	23.40±1.07
	25~29	14 (10.5)	(21~27)
성별	여자	126 (92.0)	
	남자	11 (8.0)	
윤리학 관련	있음	114 (83.2)	
교양과목 수강 여부	없음	23 (16.8)	

SD : standard deviation.

와 역할극(4.16±0.62점) 모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영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6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영화 4.31±0.49점, 역할극 4.03±0.6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서 딜레마 사례로 영화나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차이를 살펴보면, 영화(4.39±0.57점)가 역할극(4.16±0.62점)보다 이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80, p<0.001). 간호윤리 교육에서 딜레마 사례로 영화나 역할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은 영화(4.34±0.59점)가 역할극(4.02±0.8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04, p<0.001). 영화나 역할극을 이용한 간호윤리 교육이 본인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 정도는 영화(4.21±0.59점)가 역할극(4.04±0.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4, p=0.016). 본인이 교육자로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경우 윤리적 딜레마 사례로 영화(4.39±0.63점)를 이용할 의도는 역할

극(3.92±0.93점)을 이용할 의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39, p<0.001). 주위에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윤리적 딜레마 사례로 영화(4.36±0.62점)를 이용하도록 추천할 의도는 역할극(3.98±0.8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77, p<0.001). 영화 및 역할극을 이용한 간호윤리 교육이 실제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정도는 영화(4.13±0.78점)가 역할극(4.04±0.7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11, p=0.271). 마지막으로 이들 6문항의 전체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화가 5점 만점에 4.31±0.49점으로 역할극 4.03±0.6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54, p<0.001) <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성별 및 윤리관련 교양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이

<Table 2> 문항별 영화 및 역할극 차이(n=137)

문항	Mean±SD		t	p
	영화	역할극		
1. 이용 가능성	4.39±0.57	4.16±0.62	3.80	<0.001
2. 효과성	4.34±0.59	4.02±0.80	4.04	<0.001
3.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4.21±0.59	4.04±0.75	2.44	0.016
4. 이용의도	4.39±0.63	3.92±0.93	5.39	<0.001
5. 추천의도	4.36±0.62	3.98±0.89	4.77	<0.001
6.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4.13±0.78	4.04±0.76	1.11	0.271
전체 평균	4.31±0.49	4.03±0.68	4.54	<0.001

SD : standard deviation.

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및 이들 문항들의 전체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영화의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에의 도움정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및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등 6개 항목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다음으로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윤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없는 대상자들에 비해 영화의 이용가능성, 효과성, 추천의도 및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의사결정능력 향상도의 도움정도와 이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마지막으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영화의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윤리학 관련 교양

과목 수강경험에 따라서는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Table 3>.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성별 및 윤리관련 교양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및 이들 문항들의 전체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도의 도움정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및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등 6개 항목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의사결정능력 향상도의 도움정도($t=-2.38$, $p=0.02$), 추천의도($t=-2.25$, $p=0.03$) 및 간호

<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 분석(n=137)

특성	구분	n (%)	1. 이용가능성			2. 효과성			3.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4. 이용의도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성별	여자	126 (92.0)	4.38±0.58	-0.91	0.36	4.33±0.59	-1.19	0.24	4.21±0.58	-0.36	0.72	4.37±0.63	-0.87	0.39
	남자	11 (8.0)	4.55±0.52			4.55±0.52			4.27±0.65			4.55±0.69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경험	있음	114 (83.2)	4.38±0.57	-0.77	0.44	4.33±0.56	-0.43	0.67	4.22±0.58	0.34	0.74	4.39±0.60	-0.04	0.97
	없음	23 (16.8)	4.48±0.59			4.39±0.72			4.17±0.65			4.39±0.78		

<Table 3 > Continued

특성	구분	n (%)	5. 추천의도			6.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영화 전체 평균		
			M±SD	t	p	M±SD	t	p	M±SD	t	p
성별	여자	126 (92.0)	4.34±0.62	-1.53	0.13	4.12±0.78	-0.62	0.54	4.29±0.49	-1.16	0.25
	남자	11 (8.0)	4.64±0.51			4.27±0.91			4.47±0.51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경험	있음	114 (83.2)	4.34±0.61	-0.97	0.34	4.13±0.79	0.01	0.99	4.30±0.47	-0.38	0.71
	없음	23 (16.8)	4.48±0.67			4.13±0.76			4.34±0.58		

M±SD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 분석(n=137)

특성	구분	n (%)	1. 이용가능성			2. 효과성			3.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4. 이용의도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성별	여자	126 (92.0)	4.15±0.63	-0.62	0.53	3.99±0.82	-1.49	0.14	3.99±0.75	-2.38	0.02	3.87±0.94	-2.01	0.05
	남자	11 (8.0)	4.27±0.47			4.36±0.51			4.55±0.52			4.45±0.69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경험	있음	114 (83.2)	4.13±0.62	-1.22	0.23	3.98±0.80	-1.29	0.20	3.98±0.76	-1.89	0.06	3.86±0.94	-1.69	0.09
	없음	23 (16.8)	4.30±0.64			4.22±0.80			4.30±0.64			4.22±0.85		

<Table 4> Continued

특성	구분	n (%)	5. 추천의도			6.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역할극 전체 평균		
			M±SD	t	p	M±SD	t	p	M±SD	t	p
성별	여자	126 (92.0)	3.93±0.89	-2.25	0.03	4.00±0.75	-2.33	0.02	3.99±0.69	-2.20	0.03
	남자	11 (8.0)	4.55±0.69			4.55±0.69			4.45±0.47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경험	있음	114 (83.2)	3.94±0.87	-1.16	0.25	3.99±0.76	-1.83	0.07	3.98±0.68	-1.76	0.08
	없음	23 (16.8)	4.17±0.98			4.30±0.70			4.25±0.67		

M±SD : mean±standard deviation.

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t=-2.33$, $p=0.0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윤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관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비해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이용의도, 추천의도 및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의 6개 항목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마지막으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역할극의 전체평균을 살펴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45 ± 0.47 점)가 여자(3.99 ± 0.69 점)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0$, $p=0.03$).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경험에 따라서는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4.25 ± 0.67 점)가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3.98 ± 0.68 점)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Table 4>.

<Table 5> 영화의 장점 및 단점* (n=137)

장점	n (%)	단점	n (%)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와 급박한 상황 연출로 몰입이 잘 된다.	32 (23.4)	주제에 맞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34 (24.8)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아 흥미유발이 쉽다.	29 (21.2)	영화를 편집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21 (15.3)
체계적인 구성으로 이해가 빠르게 된다.	23 (16.8)	극적인 사례 위주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14 (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18 (13.1)	영화의 상황 및 영화의 지향성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10 (7.3)
윤리적 쟁점이 명확하다.	12 (8.8)	영화의 결과가 윤리적 의사결정의 정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8 (5.8)
효과음 및 긴장감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고, 내용의 흐름이 매끄럽다.	9 (6.6)	영화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내용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이 어렵다.	6 (4.4)
현상을 만들지 않고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 좋고, 역할극보다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	9 (6.6)	흥미가 떨어지고 지루하고 딱딱하다.	4 (2.9)
윤리적 사례의 자세한 상황 및 주인공들의 가치관 지식 등을 알 수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4 (2.9)	전문적인 지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2 (1.5)
역할극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 (0.7)	참여도가 떨어진다.	2 (1.5)
		동영상 편집이 어렵다.	2 (1.5)
		자칫 영화감상으로 그칠 수 있다.	2 (1.5)
		기타 의견	6 (4.4)

*중복응답.

5.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 내용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영화 및 역할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

강생들의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진술문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구문을 찾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영화 및 역할극의 장점, 단점,

<Table 6> 역할극의 장점 및 단점* (n=137)

장 점	n (%)	단 점	n (%)
친구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해서 더 재미 있고 관심이 갔다.	30 (21.9)	역할극 연습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20 (14.6)
역할극을 설정하고 연습하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 (14.6)	정보전달이 부족하다(배우들의 연기력 등).	19 (13.9)
정확한 사례를 직접 만들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19 (13.9)	상황에 몰입하기 어렵다.	18 (13.1)
직접 역할극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12 (8.8)	전하고자 하는 쟁점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사례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11 (8.0)
직접 사례를 작성 하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11 (8.0)	준비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부담이 되었다.	8 (5.8)
조원들과 역할극을 하면서 상황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9 (6.6)	체계적이지 못할 수 있고 내용 구성이 어렵다.	8 (5.8)
직접 역할극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는다.	7 (5.1)	동영상 제작이 어렵다.	8 (5.8)
역할극을 만든 조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쉽다.	7 (5.1)	상황설명이 적고 사례가 단순하다.	7 (5.1)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생긴다.	6 (4.4)	상황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다.	7 (5.1)
간접경험이 가능하다.	5 (3.6)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5 (3.6)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례를 만들 수 있다.	3 (2.2)	연기를 해야 하고, 연기가 미숙하여 어색하다.	5 (3.6)
직접 사례를 작성하므로 융통성이 있고 효과적이다.	3 (2.2)	좋은 대본을 쓰기 어렵다.	4 (2.9)
흥미 있고 극단적이라 의사 결정이 쉬웠다.	1 (0.7)	한정적인 소재로 조별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된다.	4 (2.9)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는 흥미유발이 우선인 느낌이었다.	4 (2.9)
		기타 의견	2 (1.5)

*중복응답.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 등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 영화와 역할극의 장점 및 단점

영화의 장점에 대해 대상자의 23.4%가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와 급박한 상황연출로 몰입이 잘된다’고 가장 많이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아 흥미유발이 쉽다’(21.2%), ‘체계적인 구성으로 이해가 빠르게 된다’(16.8%),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13.1%) 등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영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단점으로는 대상자의 24.8%가 ‘주제에 맞는 영화를 찾기

가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화를 편집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15.3%), ‘극적인 사례 위주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5>.

역할극의 장점에 대해서 대상자의 21.9%가 ‘친구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해서 더 재미있고 관심이 갔다’고 가장 많이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역할극을 설정하고 연습하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14.6%), ‘정확한 사례를 직접 만들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13.9%) 등의 순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역할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단점으로는 대상자의 14.6%가 ‘역할극

<Table 7> 영화의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 (n=137)

이용소감 · 느낌 · 평가	n (%)	고려사항 및 개선점	n (%)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의 사례가 많고 다양해서 좋았다.	23 (16.8)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야 한다.	24 (17.5)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19 (13.9)	앞, 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22 (16.1)
전문적으로 되어있어 깊게 몰입 가능하며 더 잘 기억에 남는다.	14 (10.2)	정확한 상황 규명과 주제전달이 중요하다.	19 (13.9)
완벽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비슷한 사례로 의사결정 할 수 있어 좋다.	8 (5.8)	발표 팀 간에 영화사례나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8 (5.8)
시각적 자료여서 이해가 잘된다.	7 (5.1)	영화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3.6)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6 (4.4)	영화사례가 주제에 적합한지 사전에 교수님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1.5)
주제와 관련된 영화사례를 찾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6 (4.4)	기타 의견	9 (6.6)
영화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5 (3.6)		
주제 전달이 잘 안 된다.	3 (2.2)		
지루하고 감흥이 없다.	2 (1.5)		
기타의견	15 (10.9)		

*중복응답.

연습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전달이 부족하다(배우들의 연기력 등)'(13.9%), '상황에 몰입하기 어렵다'(13.1%) 등으로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6>.

2) 영화와 역할극의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

영화의 이용소감으로는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의 사례가 많고 다양해서 좋았다'(16.8%), '흥미롭고 재미있었다'(13.9%),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 깊게 몰입이 가능하고 더 잘 기억에 남는다'(10.2%) 등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

었다. 영화를 이용할 때의 고려사항으로는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야 한다'(17.5%), '앞·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16.1%), '정확한 상황 규명과 주제전달이 중요하다'(13.9%)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Table 7>.

역할극의 이용소감으로는 '어렵지만 직접해보니 흥미롭고 재미있다'(38.0%), '사례를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볼 수 있어 좋았다'(10.2%) 등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역할극을 이용할 때는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17.5%),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면 좋겠다'(16.1%), '대사 전달이

<Table 8> 역할극의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 (n=137)

이용소감 · 느낌 · 평가	n (%)	고려사항 및 개선점	n (%)
어렵지만 직접해보니 흥미롭고 재미있다.	52 (38.0)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24 (17.5)
사례를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볼 수 있어 좋았다.	14 (10.2)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면 좋겠다.	22 (16.1)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8 (5.8)	대사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10.2)
내용집중이 어렵고 잘 몰입할 수 없다.	7 (5.1)	다방면의 자료수집(뉴스, 기사, 만화, 판례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로 역할극의 상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3 (9.5)
상황 설명이 부족하여 전달력이 떨어진다.	6 (4.4)	사례가 주제에 적합한지(교수님께 미리 검토를 받는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0 (7.3)
친구들의 사례를 보는 것이 몰입됐다.	5 (3.6)	윤리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2.2)
이해가 잘 된다.	5 (3.6)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한다.	2 (1.5)
준비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부담스럽다.	5 (3.6)	기타 의견	7 (5.1)
현장감 있고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 좋았다.	4 (2.9)		
기억에 잘 남는다.	4 (2.9)		
기타 의견	7 (5.1)		

*중복응답.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0.2%) 등의 내용이 고려사항으로 제시되었다<Table 8>.

IV. 고찰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분석이 함께 결합되어진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 research design)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혼합연구설계는 질적 및 양적 방법론을 절충한 방법론으로, 보려고 하는 현상의 실재를 생생하게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특히 과정적인 측면과 성과적인 측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실천지향적인 학문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연구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다[32,3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혼합연구설계를 이용한 것은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과정적 측면과 성과적 측면을 모두 탐색함으로써 실천지향적인 간호학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며,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방법론으로써 영화와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들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하기에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6개 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중 영화 4.31점, 역할극

4.03점으로 나타나 이들 교수학습방법들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영화에서는 전체 6개 문항들 중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영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4.39±0.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들로 구성된 간호학과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육에의 영화사례 이용가능성을 탐색한 선행연구[34]에서 본 항목의 점수가 4.78±0.44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간호사들인 간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영화의 이용가능성이 1위 및 2위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영화의 이용가능성을 강하게 지지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에서는 '간호윤리 교육에 역할극 이용가능성'이 4.16±0.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문항들도 5점 만점에 평균 3.92점에서 4.04점의 범위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역할극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실습평가에 대하여 수강생의 87.5%가 역할극 사용의 적합성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선행연구[4]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간호윤리 교육에서 실제로 영화와 역할극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례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경험해 본 후,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이들 방법들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교육자로서 이 방법을 이용할 의도, 타인에게 이용을 추천할 의도 및 6문항의 전

체평균에서 역할극에 비해 영화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에서도 영화가 역할극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교수학습방법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모두에서 역할극에 비해 영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의료윤리 교육에서 대조군에 비해 영화를 이용한 실험군에서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김선영[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에 있어 영화를 활용한 교육이 전통적인 간호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해줄 수 있으며, 간호학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들[3,26]을 지지하고 있다. 즉, 연기자의 행동을 보고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도록 도와주며[35], 문자매체에 비해 해석의 거부감도 적고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의 장점들[36]이 부각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영화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간호교육에서의 영화활용은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표준화환자 훈련비용이나 시나리오 제작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37]. 그러나 역할극에 비해 영화가 더욱 이용가능성이 높으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결과가 더 높은 수준의 근거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영화와 역할극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수학습방법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에서, 먼저 영화에서는 대상자의 성별 및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관련 6문항 그리고 전체평균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화활용 교육의 효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를 찾기 힘들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영화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이 유사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어, 대상자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교수학습방법으로 영화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차이에서, 윤리학 관련 교양과목 여부에 따라서는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관련 6문항 및 전체평균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의사결정 능력 향상 도움정도’, ‘추천의도’,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움정도’ 및 ‘전체 6문항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극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4]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대상자의 수가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성별에 따른 샘플 수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통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주관적 평가 내용은 영화와 역할극의 장점, 단점,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 등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영화에 대해서는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와 급박한 상황연출로 몰입이 잘되었으며’,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의 사례가 많고 다양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주제에 맞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상반

된 의견 또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수학습방법으로 영화 활용 시 고려점으로는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야 하며’, ‘정확한 상황 규명과 주제전달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영화에 대한 이들 평가들은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개발 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화관련 선행연구들[3,38]에서 제시한 내용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매체로 영화 활용 시에는 저작권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역할극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해서 더 재미있고 관심이 갔으며’, ‘역할극을 설정하고 연습하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반면에 ‘역할극 연습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배우들의 연기력 등에 따라 정보전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역할극을 활용한 선행연구들[4,17,2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역할극 이용 시 고려사항으로는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면 좋겠다’, ‘대상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양적분석 결과에서 역할극에 비해 영화가 유의하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할극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3.92~4.16점의 범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역할극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으로써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자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은 역할극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비교·확인되었으며,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 특성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실제적으로 영화와 역할극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내용이 함께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미래의 의료인 및 현장의 의료인들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윤리 및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학습성과 성취 및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의 전문 의료인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의료윤리 및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가 더 높은 수준의 근거로서 활용되기 위해 영화와 역할극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반복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㉞

REFERENCES

-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3학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서울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3 : 3-132.
- 2) 정석희. 기초간호과학 해부학 교육에의 창의적 교수법 적용 및 효과.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2009 ; 11(2) : 183-194.
- 3) 오진아. 간호교육에서 영화의 활용에 관한 고찰: cinemeducation.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0 ; 16(2) : 194-201.
- 4) 김영희, 이영미. 역할극 활용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평가방법에 대한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과정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2 ; 13(1) : 147-155.
- 5) 손영주, 송영아, 최은영. 간호학생에게 적용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010 ; 17(1) : 82-89.
- 6) 김정아. 사례기반학습의 적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력, 내적 동기와 수업 만족도의

- 차이. *교육방법연구* 2015 ; 27(1) : 21-37.
- 7) 유문숙, 박진희, 이시라. 비디오활용 사례기반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010 ; 40(6) : 863-871.
 - 8) 장금성, 김은아, 박현영. 액션러닝을 활용한 근거기반간호 수업운영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5 ; 21(1) : 119-128.
 - 9) 김상돌. 혼합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014 ; 20(5) : 567-575.
 - 10) 김모임, 이원희. *간호윤리와 실무*. 서울 : 현문사, 1997 : 199-219.
 - 11) Benner P. The role of experience, narrative, and community in skilled ethical comporment. *ANS Adv Nurs Sci* 1991 ; 14(2) : 1-21.
 - 12) 이원희. *간호윤리 교육과 연구의 동향*. *간호학탐구* 2004 ; 13(1) : 24-34.
 - 13) 이경희, 정상우. *간호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필요성 연구*. *법 교육 연구* 2013 ; 8(1) : 111-140.
 - 14) 장금성, 이명하, 김인숙 등.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개정수정판)*. 서울 : 현문사, 2013 : 19-27.
 - 15) 신자현, 정석희, 이명하 등.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과 윤리교육 요구. *간호행정학회지* 2015 ; 21(3) : 327-339.
 - 16) 엄영란. *미국 생명의료윤리학의 최근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1 ; 4(1) : 81-97.
 - 17) 정현정, 박현주, 장인순. *간호윤리 수업에서의 CEDA 토론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도덕 판단력과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2 ; 18(2) : 248-258.
 - 18) 엄영란, 강소영, 노원자. *간호윤리 상황극을 통한 병원간호사의 긍정윤리관 변화*. *임상간호연구* 2012 ; 18(1) : 1-12.
 - 19) 김창희, 정선영. *윤리적 의사결정모형 기반 토론식 수업이 윤리 지식, 수업만족도 및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14 ; 12(10) : 405-414.
 - 20) 김선영.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2014 ; 14(7) : 281-290.
 - 21) 이명근. *영화의 교육적 활용*. *미래교육연구* 2005 ; 18(1) : 1-26.
 - 22) Alexander M. *Cinemeducation: an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multi-cultural diversity in medicine*. *Ann Behav Sci Med Educ* 1995 ; 2 : 23-28.
 - 23) Alexander M, Waxman D. *Cinemeducation: teaching family systems through the movies*. *Fam Syst Health* 2000; 18 : 455-466.
 - 24) 오진아, 신혜원, De Gagne J. *간호학생의 질 향상과 안전교육(QSEN) 역량개발을 위한 영화 간호교육의 적용*.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2 ; 18(3) : 474-485.
 - 25) 오진아, 임미해, 노혜린. *아동성장발달 이해를 위한 경험학습모델 기반 영화간호교육 개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 ; 20(2) : 96-104.
 - 26) Oh J, Kang J, De Gagne J. *Learning concepts of cinenurducation: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 Today* 2012 ; 32(8) : 914-919.
 - 27) 이정민. *한국어 말하기 교재 속 역할극 활동의 구성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1-108.
 - 28) Reams S, Bashford C. *Interdisciplinary role play, nursing and theater students advance skills in communication*. *Delta Kappa Bulletin* 2011 ; 77(4) : 42-48.
 - 29) 박은옥. *역할극을 활용한 가족간호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가족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3 ; 19(4) : 656-662.
 - 30) 정현정. *간호대학생의 여성건강간호 실습교육 위한 역할극을 활용한 교정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성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5 ; 9(1) : 137-146.
 - 31)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et al.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 Res Methods* 2009 ; 41 : 1149-1160.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32) 권경인, 양정연. *상당 분야 혼합연구 동향분석*. *교육연구논총* 2014 ; 35(1) : 103-124.
 - 33) Hanson W, Creswell J, Plano Clark V, et al.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s in counseling psychology*. *J Couns Psychol* 2005 ; 52(2): 224-235.
 - 34) 정민희, 정석희, 최순기 등. *간호윤리교육에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영화사례 이용가능성 탐색: 예비조사*. *전북간호학논집* 2012 ; 7(1) : 35-43.
 - 35) Briggs C. *Engaging students using feature films*. *J Nurs Educ* 2011 ; 50(6) : 360-360.
 - 36) 박헌준, Champoux J, 김상준. *영화와 경영교육: 영화를 통한 협상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3 : 568-595.
- 37) Northington L, Wilkerson R, Fisher W, et al. Enhancing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using aesthetics. J Prof Nurs 2005 ; 21(1) : 66-71.
- 38) 오진아. 간호대학생의 역량 개발을 위한 영화매체 활용법.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2014 ; 5 : 79-94.

A Comparative Study of the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inema and Role-playing in Nursing Ethics Education*

JEONG Seok Hee**, SHIN Ja Hyun***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of both cinema and role-playing as teaching-learning methods in nursing ethics education. A mixed-method research design combining a survey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2013 to 2015. Participants were 137 seni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of nursing in South Korea. Both the cinema and role-playing methods showed high degrees of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in nursing ethics education. Cinema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vailability, effectiveness, helpfulness for improving ethical decision-making, intention to use, and intention to recomme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inema may be a more useful and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nursing and medical educators in order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abilities of stud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Keywords

nursing ethics, nursing education, motion pictures as topic, role playing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Corresponding Author**